

중부권

영산포 흥어 살리기, 개인사업 전략

국비와 시비 등 3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영산포 흥어 향토산업'이 개인사업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전통식품 영산포 흥어 산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비 15억원이 지원된 가운데 전남도가 1억 8000만원, 나주시가 10억2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자가 3억원을 부담하는 등 총 30억원을 들여 '영산포 흥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현재 보조사업자 E(고구려대 교수)씨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나주시 30억 투입...사업총괄자 멋대로 집행

브랜드 개발 판촉 위주로 사업계획 바뀌어

당초 공모사업을 기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E씨가 자신의 부인이 대표이사로서 있는 회사의 건물을 사무국으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하는 등 사업비 자체가 특정 개인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재발추기식으로 영산포 흥어상인 33명을 합류시켜 사업단을 구성했을 뿐 정작 사업 계획자체가 연구개발이나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집중 배정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다. 해당 상인들은 "당초 사업계획서를 E씨가 기획했던 만큼 사업비 집행도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에 치중하는 등 개인 사기업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영산포 흥어산업 발전과는 무관하게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모니터링 결과 연구용역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집중 배정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E씨는 "사무국을 옮길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나 현재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며 "연구비 6억3000만원, 사무국 운영비 3억6000만원 등으로 별분제가 없으며 스스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던 만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달 6일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이사회가 소집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는 등 올해 지원된 국비 8억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가을햇살 속 금슬좋은 감따기

3일 강진군 병영면 증고마을에서 노부부가 따가운 가을햇살속에 감을 수확하고 있다. 감은 비타민A·C 성분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다.

3일 강진군 병영면 증고마을에서 노부부가 따가운 가을햇살속에 감을 수확하고 있다. 감은 비타민A·C 성분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흥 수협 vs 어촌계 10년 분쟁 '끝'

법원 "어민들 보증 책임 5000만원 물고 끝내라"

수협과의 법적분쟁으로 생계터전이자 어촌계 공동재산인 양식어업장 풀지가 잃을 위기(본보 2월 25일 11면)에 처했던 어민들이 법원의 민사 배심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어업권을 되찾게 됐다.

3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최인규)에 따르면 채권자인 장흥수협과 채무이행소송에서 '채무보증에 어촌계가 책임이 있다'며 관산 장항 어촌계 양식어업장 강제경매 결정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이뤄진 민사 배심조정에서 원금 일부만 어촌계가 상환하라는 판결로 양식어업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

관산을 사무소에서 출장형태로 수산업, 금융업 등 각계 15명의 배심조

정위원이 참여해 진행된 민사 배심조정에서 피고인 장항어촌계가 원고인 장흥수협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수협은 피고가 돈을 지급하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연 3%의 금리로 대환하는 조건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사건은 지난 2000년 6월 23일 장흥수협이 관산을 장항어촌계장 김모씨가 어촌계원들의 연명 도장날인 서류를 제출해 동생 김모씨가 1억 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면서 비롯됐다. 수협은 채무자 김씨가 부도선변제능력이 없어지자 그동안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4억7000여만 원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장항어촌계를 상대로 상환청구 소송을 제기



<최인규 지원장>

했고, 법원은 피고인 장항어촌계는 원고인 수협에게 6억1000만원(연체이자 포함)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협은 곧바로 장항어촌계 소유 김양식어장 155ha를 비롯 고막·새고막 등 191ha에 대한 어업권 양주와 강제경매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항어촌계와 장흥수협은 그동안 대출과정의 연대보증을 둘러싸고 '직인'과 어촌계원 서명·날인이 날조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해 이번 법원의 민사 배심조정으로 법적분쟁을 끝내게 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다산 흔적 찾아 유배길 걸어볼까

강진군, 서울~다산초당 '유배 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길을 따라 걷는 유배체험이 진행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유배길 아카데미' 참여자 20여명이 5일 1801년 당시의 금부 터였던 서울 제일은

행 본점에서 출발, 송내문→과천→평택→공주→계룡→정읍→장성→나주→영암 등을 거쳐 오는 22일 유배지인 다산초당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다산동호회

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산동호회원과 다산실학연구원 등 5명의 자원팀을 구성하고 각종 자료집과 수차례 사전답사 등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 (사)다산연구, (사)화성연구회, 남양주시 다산학술포럼이 후원하며, 남양주시 다산교육문화원, 무예도보통지 24기 보존회, 아름다운 도보여행 등 관련

동아리와 연계해 다산 선생의 유배길을 거치는 문화 벨트를 형성했다.

이번 유배길 아카데미는 고등학교생부터 50대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유배 길을 몸소 체험하면서 다산정신을 계승하고 선진 학문과 사상의 교류, 길 위의 인문학 등으로 다산의 유배 길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5일 첫날에는 본격적인 유배길 체험에 앞서 무예 24기 시연과 과거 곤장치는 모습, 주리트는 모습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열렸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송정농협, 5일시장내 '한우명품관'

광주 광산구 송정5일 시장내(구 우시장)에 한우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송정농협(조합장 나훈)은 지난 2일 농협 김병원이사(남평농협 조합장)와 농경지 원담당 최도일 상무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성 한우 한우명품관' 개관식을 가졌다.(사진)

한우명품관은 총 부지면적 333.45㎡·건축면적 864.64㎡로 지상 3층으로 건립됐다.

지상 1층은 축산물 판매장과 냉장·냉동설비를 포함한 정육판매시설로 월 소 60두·돼지 600두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을 갖춰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시설됐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장흥군, WHO 선정 '건강 도시상'

장흥군이 최근 개최된 'AFHC(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2010 강남총회'에서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우수건강도시로 선정, '건강도시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물 축제를 통한 '건강생태도시'의 지역환경조성을 비롯해 ▲편백 숲을 이용한 건강 환경 조성 ▲지역사회 건강지도자 양성 등을 통한 주민신체활동 증가 등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군정을 펼친 결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명흠 군수는 "앞으로 활기찬 건강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안전한 생활도시, 행복과 나눔이 있는 희망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나주시 "투자기업 혜택 드립니다"

인력·행정 등 지원

나주시가 지역에 투자해 활동하고 있거나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최근 나주 종합골드스파&리조트에서 30여개 투자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기업들이 '나주에 투자하기를 잘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 행정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철폐 등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호산P&T 대표는 "임지와 자금, 인력문제로 초기에 창업의 벽

이 너무 높은 것을 실감했다"며 행정차원의 지원을 주문했고, 조진우 경광산업(주) 이사는 "지자체가 지역업체의 우수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행정을 펴나가겠다"며 "기업들의 순쉬운 보증서 발급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역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의 기업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Includes a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태영부동산 테테크컨설팅. 호남경매전문지사, 배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Includes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건물: 65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Includes details on land sale and contact info.

복대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구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구매 (192㎡ 58py). Includes details on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